



- 2005년도 국가물류시행 계획안 발표

##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확충사업과 물류 선진화 사업 등에 정부지원 확대하기로

정부는 최근 「2005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금년 중 5,835억원(융자 654억원, 보조 5,181억원)을 민간에 지원, 물류시설의 확충과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촉진하여 국가물류비를 절감시키고, 물류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물류시행계획」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립하는 20년 장기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년도별 세부 실천계획으로, 이번에 확정된 「2005년 국가물류시행계획」에서는 복합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농·수·축산물 물류거점시설 등 물류시설 건설에 1,719억원, 물류 표준화, 정보화 등 물류기술의 고도화 부문에 806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확충사업에 정부 지원을 통하여 5대 권역별로 거점물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물류를 효율화에 역점을 두었다.

또, 7대도시의 물류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와 관련한 환경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7대도시별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토대로 추진한다. 종합물류기업 육성, 도로편중 화물수송구조 개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공항 화물처리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의 국제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005년 국가물류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물류 간선네트워크의 구축

수도권 남부 내륙화물기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군포 내륙화물기지를 확장한다. 기존의 전국 5대권역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포항에는 공단화물터미널을 건설하여 일반화물터미널이 복합화물터미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물류공급망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28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강릉, 울산, 음성에 설립하고, 서울, 전주, 광주, 여주, 천안, 평택, 안동 등에도 8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거나 실시할 계획이다. 유통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건설에는 160억원이 지원된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김해와 금산에 개장하고, 160억원의 국고보조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 또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362억을 투입하여 현대화하고, 감천항에는 도매시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부산진역의 하역체계를 현대화하여 동북아 물류전진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대량 장거리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화물취급역을 정비하고, 물류창고, 철도화물기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보완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선과 건설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령인 기존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확대 개편하여 물류시설 총괄법화하여 화물터미널과 유통단지를 근간으로 관련 물류시설을 종합 조정하는 물류시설 총괄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 물류기술의 고도화  
(물류정보화/표준화/기술개발 등)**

종합물류정보망 구축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유관망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류정보이용 활성화하고, 물류문서 표준화 및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되고, 해운항만 물류정보 센터도 구축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물류비용 시뮬레이션'을 통한 운송형태에 따른 구간별 운송수단별 공시요율을 제공하고, 업종별, 업체별로 동일 업무에 대해 각기 다르게 사용되는 문서형태, 내용 등의 코드 및 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이용자별 항만시설 활용결과 통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과 ASP도 개발할 계획이다. 인터넷 수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업인 홈페이지를 추가로 구축하고,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도 실시한다.

농림부는 농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은 이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출하지원시스템, 도매시장 통합 홈페이지, 농수산물표준코드, 정보 공유 사이트 등 유사 사이트를 통합하고, 전자경매 실시간 속보, 정산정보 제공, 농수산물 표준코드 이용 확대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둘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물류업종의 B2B사업을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유통 물류정보화에 지원하며, 물류표준화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물류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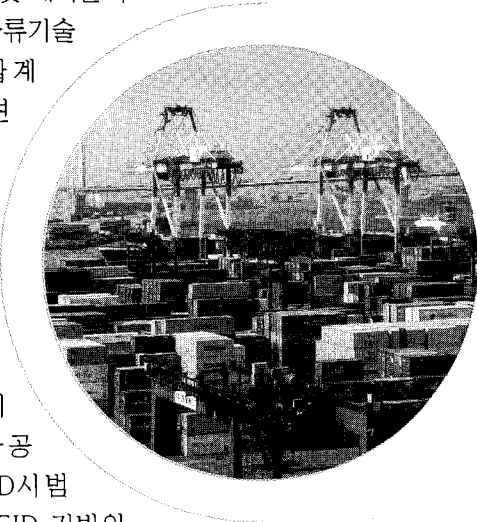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는 농산물 물류표준화 기기의 공급,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등 물류표준화 기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규격의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수산물 물류표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물류표준설비 규격 제정을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유닛로드시스템 통칙을 개정하는 한편, 물류표준설비 인증업체를 40개사 60개 설비로 확대하고, 첨단 물류기술의 수요조사 및 투자현황/전망분석, 첨단 물류기술 우선순위 선정 및 기술수준 정립, 물류기술

개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물류기술 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그리고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차세대 지식기반 항공 화물 RFID시범 사업', 'RFID 기반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35억원을 지원하며, 특히 RFID기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RFID 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운영, 유비쿼터스 전자 물류시스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같은 유통물류합리화 자금으로 500억원을 배정하여 물류정보화, 표준화, 자동화, 공동화, 신기술 개발 등에 지원한다.



**▣ 물류산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공동부령을 하반기에 제정된다.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이상을 종합물류업체에 위탁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물류비의 2%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하반기에 개정한다.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개별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 운송시장이 선진화하고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하며, 화물운송 가맹사업제도의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 화물차 공영 공동 차고지를 연차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항만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휴게소도 대폭 늘려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 및 수익향상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로에 편중되어 있는 화물수송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화물운임제도를 개선하고 화물수송 최적화 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한다는 목표다. 연안해송의 활성화를 위해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내항 화물운송사업체에 대해서는 유류비, 선대구조의 개선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의 신선대, 감만부두, 광양항에 각각 C/C 기를 증설하기 위해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항만장비 투자에 지원할 계획이다.

### ■ 친환경적 물류환경의 조성

대구~통영간 50km, 충북권 23.3km, 화성동탄과 부산 정관 등의 신규 공급 배관 4km 등 천연가스 주배관 77.3km를 확충하여 지하물류시스템을 구성한다.

‘화학물질 사고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해물질, 폐기물 등 위험물, 유독물 운송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 세계를 지향하는 국제물류네트워크의 구축

인천국제공항의 화물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적사 화물터미널과 외국계 화물터미널을 건설한다.

부산신항은 2006년 1월 조기 개항을 위해 3선석 완공과 배후단지 3만평을 조기 조성된다. 신항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을 남해고속도로 지선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견마교 및 가락 IC를 연내에 정비하는 한편, 표지 관제시설, 전기시설, 상수도 인입 등 조기 개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설을 완비한다는 목표다.

그리고, 광양항은 283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12선석을 확보하여 기반시설인 준설토 투기장과 배후도로 및 부두 7선석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일본 중국 등의 주요 선화주를 대상으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포트 세일즈를 실시하고, 항만배후 부지 조기 조성 및 관련부지에 국제물류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환적화물의 유치마케팅도 펼칠 계획이다.

또한, 한중간의 목포~상해간 신규 카페리항로를 개

설하고,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한 경제적 통일에 대비한 물류기반을 조성한다.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입주 기업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항만자유무역지역관리에 관한 지침’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이와함께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자유무역지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직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인천 청라지구, 광양 화양지구 등 총 8개지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실시 계획을 승인하고 이중 5개 지구는 착공에 들어간다. 또 기 체결된 MOU의 최종 계약 가시화, 신규투자가 유치, 지역별 차별화 전략, 업종별 닷갯기업을 유치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국내외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하고, 해외 우수병원, 학교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고, 인천공항, 부산시설·광양항, 제2연육교,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화물유통촉진법령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 시험과목에 국제물류론을 추가하여 물류관리사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MBA수준의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존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200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

해운항만분야를 특화하여 재직자 위주의 장기교육과정 신설 및 단기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및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세계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물류전문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물류**